

# “광주 세계수영대회 사업비 증액 여지 있다”

윤장현 시장 귀국·기자단 간담회  
北 선수단 판문점 통해 참가했으면  
전세기·직항로 등 교통 여건 개선

윤장현 광주시장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와 관련 “증액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선수단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적 가치’라고 규정하며 참가를 촉구했다.

윤 시장은 3일 2017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수영대회 출장 귀국보고회를 겸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예산 증액에 대해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협력관이 헝가리 대회 기간 내내 광주대표단과 동행하면서 토론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광주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며 “예산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이 확실히 확신을 갖고 국제수영연맹(FINA)은 광주 준비상황에 대해 만족하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창 이후 메가스�포츠 대회는 수영대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후 내일(4일) 첫 자리를 하는 만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급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영대회 총사업비는 그동안 수영 불모지에서 아시아 수영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



윤장현(맨 왼쪽) 광주시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막식에서 인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3일 광주시청 3층 시청실에 임시 안치됐다. 대회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관이 마련되면 그곳에 정식 안치된다. <광주시제공>

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2.7배 증가한 1697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조직위는 1만5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의 성공리에 치르고, 특히 1회성이 아닌 지역유산(레거시)으로 남기기 위해선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북한 참가에 대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윤 시장은 “(북한선수단 참가와

관련해) FINA와 협조했었고 문체부 등 정부 담당자들과도 깊은 관심을 같이했다. 대회 구호(Dive into Gwangju, Dive into Peace)처럼 스포츠를 통한 시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 선수들이 열차로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개인적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2021년 대회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점을 들며

“전세기나 직항로 등 교통여건 개선에도 힘을 쓸 때”라고 언급했다.

또 “광주대회도 경제기능 뿐만 아니라 미디어 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장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 특히 오픈워터의 경우 주경기장에서 2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가능한 만큼 유연성 있게 후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추가설명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국정과제로 본 광주 미래 ⑤광융합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 포토닉스와 케어 접목 신산업 육성

### IoT 체험관 건립 등 경쟁력 강화

광기술원·전자통신연구원 주체  
2022년까지 7500억 들여  
거점병원형 사업 등 실시

확보로 4차산업 혁명에 맞춰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육성하고, 광융합산업의 전·후방산업간 시너지 강화를 통한 지역 연결 산업의 성장까지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999년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수립, 정부에 건의한 광주시는 이후 정부 지원을 받아 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자동차·기전산업에 이어 지역 3대 주력산업으로 키워냈다. 광기술을 중심으로 한 광통신, 광계측, 광정보 등의 산업만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모든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광산업은 그러나 최근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수요 창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기술 및 차세대 신기술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광융합 연구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기술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가 내놓은 것이 광융합 기술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포토닉스케어 신산업 육성)이다. 광기술을 의미하는 포토닉스(Photonics)와 케어(Care)를 접목시키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기술과 광기술의 융합으로 개발된 다양한 스마트 광의로기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헬스케어 신산업을 의미한다.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2030년 포토닉스케어 누적매출액 2조원, 지역연관산업 누적매출액 6조원, 지역 누적고용창출 2만명, 신기술 의료서비스 30개 및 거점병원 3곳 확보, 글로벌 중소기업 50곳 육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만 국비 5200억원 포함해 7500억원에 달한다. 사업주체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맡아 포토닉스케어 정보플랫폼 구축 및 신기술 연구개발, 거점병원형 서비스 시범사업, 포토닉스 융합 기반구축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2018~2021)에 포토닉스 핵심기술 연구개발, 포토닉스케어 IoT체험관 구축, 의료플랫폼 원천기술 연구개발 등을, 2단계(2022~2023)에는 포토닉스케어 산업벨트 구축, 초연결 기반 의료정보 통합 연구개발, 도시·도시 초연결 지능형 서비스, 포토닉스케어 IoT 통합 서비스 등을 완료하게 돼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포토닉스 기술

마지막 3단계(2024~2025)에는 전략육성 기업 사업 확장 지원, 포토닉스케어 플랫폼 시범사업 실시, 통합의료 표준화 및 인증지원, 지능정보기반 통합 플랫폼 등의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ACE 페어 ‘적정’

##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 등 5건 ‘조건부 추진’

### 광주시, 재정투자심사 결정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와 2018 광주 ACE 페어 등의 사업이 광주시의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3일 “최근 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사업(사업비 657억원)에 대한 심사 결과, 2건을 ‘적정’ 사업으로 선정했다”며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 등 5건은 ‘조건부 추진’, 2018 광주국제미술전람회(광주아트페어)는 재검토 사업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광주시는 해마다 4회의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정투자심사는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일반 투자사업 6건과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심사에서 국가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따졌다.

심사를 통해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94억원)와 2018 광주 ACE 페어(20억원)는 적정 사업으로 결정됐고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 학습관 건립(140억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180억원)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180억원) ▲조선대학교 에너지저장장치(ESS)보급에 따른 전기비용(45억원) ▲계림2동 주민센터 건립(21억원) 등의 사업이 ‘조건부 추진’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국제농업박람회 中 알리바바 등 250개 기업 참가

### 나주 농업기술원

### 10월 26일 개막

중국 알리바바 등 세계 250여 기업이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한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오는 10월 열리는 ‘2017국제농업박람회’에 250여 기업이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일본·네덜란드·미국 등 세계적인 농업선도국 34개국 이 대거 참여해 국제행사로서의 높은 위상과 면모를 갖췄다.

국내 기업은 롯데·이마트·CJ 등 대형 유통사는 물론 NS물·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사도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중국의 알리바바 등 30여 바이어를 확보하고 국내 기업 및 농가의 판로를 개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B2C(Business to Consumer·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는 물론 국내 최대의 전문적인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과 기업 간 거래) 박람회로서의 성공도 예상된다.

한편, 올해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LS엠트론·박텍 등 대형농기계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혁신을 선도할 드론, 스마트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전시한다.

또 미래 먹거리인 식용곤충산업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제품을 선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보건환경연, 美 학회 먹는 물 시험 3년 연속 ‘만족’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수련도시시험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하는 먹는 물 분야 국제수련도시 시험에서 3년 연속 ‘만족’ 판정을 받았다.

이 시험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와 국제실용실인증협력기구(ILAC)가 인정한 수련도시 평가기관인 미국 ERA가 시행했으며, 세계 239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국제수련도시 시험은 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험은 미국 ERA에서 일정 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시료를 조제해 분석기관에 제공한 후 참여기관의 개별 평가항목 측정값과 기준값을 평가하는 방식으

로 진행됐다. 평가는 만족, 경고, 불만족 등 3단계로 나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평가 결과 중금속 5종, 이온성분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2종, 시안 1종 등 모두 12종에서 모두 만족 수준에 해당되는 Z-Score 2.0 이하 단계를 받으면서 우수 분석기관임을 입증했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수련도시 평가를 통해 다시 한 번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명성이 있는 국제공인 능력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만원 / 650만원 / 4만7천원부터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

의료광고심의일 제 170713-총-83334호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차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내시경으로 절개없이 해결 가능?

비수술적으로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비절개로 어깨나 무릎처럼 양측 삽입구를 통한 일반 내시경 수술로 디스크 치료가능합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곳!

**첨단우리병원**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관절 치료!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